

“보훈부, 화순 능주초 ‘정율성 흉상 철거’ 권고는 월권”

광주·전남 교육청 국감

국회 교육위원회의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 국감에서는 시교육청 채용비리와 정율성 기념사업이 집중 거론됐다.
국민회의 정경희 의원은 17일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시교육청은 감사관 채용 비리 사건과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한 내실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시교육청의 감사관 채용 방식은 5명의 외부 평가 위원이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을 시행해 인사위원회가 우선순위 2명을 결정한다 뒤 교육감이 최종 선택하는 구조”라며 “하지만 시교육청의 A사무관은 1차 과정부터 채용에 관여했다”고 밝혔다.
이어 “A사무관은 이 교육감의 고교동창이 채용될 수 있도록 응시원서 접수 때부터 거론하는 등 수차례 언급했다”며 “무엇보다 2명을 뽑는 대상에 들지 못하자 점수를 1차 상향했고 또 순위에 들어가

서동용 의원 “능주초 ‘정율성 흉상’ 도교육청 사업과 무관”

광주교육청 채용비리 교육감 사과·재발 방지 대책 주문도

지 못하자 평가관을 찾아가 점수 상향을 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광주교육청 최모 사무관은 교육감의 고교 동창이 순위에 들지 못하자 심사위원을 통해 점수를 상향 조정했다”며 “일개 사무관이 뒤집어쓰고 끝날 일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내 사람 챙기기에 눈이 멀어 다른 사람을 들러리로 세우는 일은 우리 사회에서 뿌리 뽑아야 한다”며 “교육감은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도덕적 책임은 물론 유감 표명도 오래전부터 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외부 인사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통해 새 감사관을 뽑았다”고 말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 이 교육감의 고교 동창을 감사관으로 채용해 논란이 일었으며 감사관 감사결과 인사담당자가 점수를 조작한 사실이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정율성 기념시설을 철거하라는 국가보훈부의 교육청에 대한 시정권고가 월권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전남교육청 예산으로 하지 않은 사업을 시정하라고 권고한 것은 (사업과) 관계없는 곳에 공문을 보낸 것”이라며 “예산사업으로 한다고 해도 자체 사업이어서 시정권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화순군이 능주초에 설치한 정율성 기념 시설물을 철거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 교장이 엄



이정선 광주교육감



김대중 전남교육감

정난 압박을 받고 있다고 들었다”며 “교육감은 교원을 보호하고 국가보훈부의 월권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문했다. 항일 무장단체 의열단 출신이자 중국 3대 작곡가인 정율성의 행적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화순군 능주초에는 정율성의 흉상이 설치돼있다. 정율성은 유년기 화순에 머무르며 능주초를 다녔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 의원은 “국가보훈부의 시정권고는 전혀 관계도

없는 곳에 대한 협박이며 막연히 정율성 동상이 능주초에 있다는 이유로 추측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김대중 교육감은 “시정권고 공문을 받고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다”며 “교육청 차원에서 정율성 관련해 진행되는 사업은 없다”면서 “도교육청이 교원을 보호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시는 한·중교류의 상징인 정율성 선생을 기리기 위해 동구 불로동 생가 일대에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연말까지 48억원을 들여 완성하기로 했다. 최근 국가보훈부와 보수단체 등은 북한과 중국에서의 행적을 이유로 광주시에 공원 사업 철회를 요구하면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국가보훈부는 화순 능주초에 있는 기념시설물에 대해 화순군과 교육청 등에 ‘정율성 기념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이른 시일 내에 이미 설치된 정율성 흉상 등의 철거를 권고했다. 화순군은 능주초 요청에 따라 학교 내 기념시설을 철거하기로 하고 교육청 등과 이를 협의 중이다. /윤영기 기자 penfoot@

정율성 흉상 복원 미적거리리는 광주 남구

“이념갈등 확산 막기 위해 주민 의견 들을 것”...광주시와 입장차

광주시 남구가 최근 두 차례 훼손된 정율성 흉상 복원에 대해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
광주시가 최근 정율성 기념사업을 중단하라는 국가보훈부의 권고와 시정 명령 방침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과 대조적이다.
남구는 정율성 논란과 관련 자진 보수단체 회원을 자칭한 운모씨가 두 차례 남구 정율성로에 있는 정율성 흉상을 훼손하자 복원여부 검토에 나섰다. 특히 16일 회의에서는 남구청장, 부구청장, 정율

성 관련 사업을 맡고 있는 3개 부서 간부가 모여 의견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구 자체적으로 흉상복원을 결정하지 않고 주민 의견을 듣기로 했다.
남구는 17일 “정율성 흉상 훼손을 ‘공유재산 훼손 사건’으로 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다만 흉상 복원 여부에 대해서는 “안전한 복구를 위한 정밀진단, 공유재산인 흉상의 처리에 대한 주민여론조사를 토대로 향후 계

획을 세울 방침이다”며 한 발 물러섰다.
남구는 “한중우호 교류사업으로 적합한 절차로 진행된 정율성 흉상이 이념 대립으로 정쟁화 됐다”며 “흉상 훼손 사건으로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와 상실감, 혼란 등이 큰 만큼 더 이상 이념 갈등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국 혁명음악가 정율성(1914-1974) 흉상은 남광주 청년회의소가 중국 해주시 인민정부로부터 기증받은 흉상을 남구에 다시 기증하면서 2009년 7월 양림동 정율성거리에 세워졌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급식카드로 밥 먹을 곳 없어요”

전남, 상반기 이용 439건 그쳐 ‘전국 최저’
가맹점 496곳 불과...광주는 30만여건 이용

올 상반기 전남의 결식아동 급식카드 이용 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적은 400여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안양 만안구)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전남에서 결식아동 급식카드를 사용한 건수는 439건에 그쳤다. 제주(7562건), 울산(7885건) 등과는 7000여건 넘게 차이가 났다.
전남은 아동급식카드 사용 가능 가맹점 수도 496개소에 그쳐 전국에서 가장 적었다. 가맹점 중에서는 편의점이 250개소로 50.4%를 차지했으며, 일반음식점은 112개소(22.5%), 휴게음식점은 52개소(10.4%)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광주에서는 급식카드가 총 30만 7300여건 사용됐다. 가맹점 수는 총 1만 6399

개소로, 각각 일반음식점 1만 3828개소(84.3%), 편의점 1513개소(9.2%), 패스트푸드점 528개소(3.2%) 등으로 구성됐다.
전남 급식카드의 사용처는 편의점이 250건(50%)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일반음식점(86건·17%), 휴게음식점(37건·8%), 마트(37건·8%) 순으로 많이 쓰였다.
광주 급식카드 사용처는 일반음식점 13만 2000여건(43.1%), 편의점 11만 4000여건(37.3%), 제과점 3만 6000여건(11.9%) 순으로 집계됐다.
강득구 의원은 “결식아동 아이들을 위해 가맹점 수를 전폭적으로 늘리고, 영양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실에 맞는 급식 단가를 책정하는 등 정부의 세심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연재 기자 yiyou@



우수공예 아이디어 상품 체험 광주시 북구 용봉동 북구청 갤러리에서 우수공예 기업 아이디어 상품 체험에 참가한 직원들과 주민들이 청년창업자와 테라리움 켈렌들을 만들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

광주·전남 시민단체, 교복값 담합 업체 소송 추진

광주전남지역 교육시민단체인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17일 교복값 담합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이날 낸 보도자료에서 “지난 1월 교복 입학 담합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결과로 바탕으로 피의자를 특정한 후 학부모 등 피해자를 모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내년 중고교 신입생 교복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됐다”며 “광주시교육청은 대안을 마련해 혼란을 줄이고, 교육부를 포함한 17개 시도 교육청과 공동 대응으로 교복 시장 질서가 바로잡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지역 교복 대리점주 31명은 2021년부터 올해 초까지 중·고등학교 147곳이 289차례 발주한 161억원 규모의 교복 구매 입찰에서 낙찰자와 입찰 금액을 사전에 담합해 재판에 넘겨졌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Inno-biz기업,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공공하수 · 공공폐수 · 공장폐수 고도처리 전문회사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 수질 측정대행업
- 공공하수도 (10,000㎡/일)미만 / 하수관로 관리대행업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TMS)
- 환경건설링회사, 환경관리대행기관
- 폐기물수집운반업, 해외건설업
- 총질소처리 공법(A204공법) 등 특허 4건, 실용신안 2건
- 하 · 폐수처리시설 설계 시공, 기술자문
- 공공하수/공공폐수 처리시설 시운전 및 유지관리 용역

수처리용 미생물제, 수처리 기자재 제조

- 미생물제품: 질소처리용 중균제 (Nitcell-O) 하수/폐수처리용 중균제 (Negenzyme)
- 화학약품: 응결제, 고분자응집제, N,P영양제,
- 고효율 STS membrane 봉 산기관 (TMS-600+)
- 판형 산기관 (TMP-1000)
- 유기탄소원 : 닛셀-C
- 천연고분자 키토산침강제 (Nexchy)
- 자동제어반, 교반기
- 부상조, 슬러지 건조기 등

대기환경분야

-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 VOC Treatment System
- Solvent Recovery System
- SCR De-NOx System
- Sulfur(H2S) Removal System
- Dust Collection System
- 기술상담 및 자료

- 1997 테리인더스트리㈜ 법인설립
- 2011 수출백만불탑, 수출유공자 수상
- 2016 나주시 스타기업 선정
- 201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모범중소기업인)
- 2019 환경부장관상 표창 (환경보전 공로)

- 2020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 2020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지정
- 2021 LG화학 우수협력회사 선정
- 2022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선정
- 2023 국제청 모범납세자 표창

본사, 공장) 58223 전남 나주시 남평읍 동촌로 19
 Tel) 061-336-2588 Fax) 061-336-2587

아름다운 자연환경 창조!

태리인더스트리(주)

Homepage : http://www.taeri.co.kr
E-mail : master@taeri.co.kr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동구 대인동 183-2번지 (한미쇼핑사거리)